

봄꽃 10년마다 2.4일 빨리 핀다

서울지역 개나리 1923년 4월 13일 개화... 올해 3월 23일

1923년 서울 지역의 개나리와 진달래 개화일은 각각 4월13일과 14일이었다. 그로부터 84년이 지난 올해는 각각 3월23일과 20일에 꽃이 피었다. 개나리는 20일, 진달래는 24일이나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기후변화 추세에 도시화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한반도의 봄꽃 개화 시기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 80여년간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 복숭아꽃, 아카시아 등 5종의 봄꽃 개화시기가 10년마다 평균 0.5~2.4일씩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창희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팀은 지난 1922년부터 2004년까지 83년간 서울 지역의 기온과 봄꽃 개화시기 변화추이를 조사한 결과, 늦은 봄보다 초봄의 기온 상승폭이 더욱 크며 이른 봄에 피는 꽃일수록 개화시기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80여년간 서울의 기온은 약 섭씨 2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지구적으로 평균 기온은 0.74도 상승했고 한반도는 그 두 배에 해당하는 1.5도가 상승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는 지구온난화에 도시화 영향까지 겹쳐 기온 상승폭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개나리와 진달래는 개화시기가 10년마다 2.4일씩 앞당겨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벚꽃과 복숭아꽃의 경우 10년마다 1.4일씩 꽃피는 날짜가 빨라졌으며, 아카시아는 10년에 0.5일씩 앞당겨져 비교적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종마다 변화추이가 다른 것은 나무의 크기도 다르고 개화 시기도 초봄과 늦봄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 또한 시기별 기온 상승폭이 다르기 때문이다.

허창희 교수는 “온난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식물의 개화시기가 급격히 변하면 꽃 피는 시기와 매개 곤충의 활동시기가 어긋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식물의 수정도 어려워지고 생태 파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화 시기뿐 아니라 나무들의 개엽(開葉) 시기도 기후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신준환·임종환 박사는 지난 1996년부터 10년간 강원도 평창군 계방산, 경기도 광릉, 남해 금산지역의 산림의 변화를 조사·분석한 결과, 나무들의 개엽 시기가 연평균기온 1도 상승시 7일, 2도 상승시 약 14일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